예능프로그램 연애 소재 과열

피로감 더해 가는데…베끼기 급급한 연애 예능

관련 프로그램 15편 동시에 공개
"만들기 쉽고 화제성 커 제작 압박"
"진정성 훼손" "차별화 필요" 지적





티빙 '환승연애2'(왼쪽), iHQ '에덴' 등 비슷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들로 시청자들의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 사진제공 | 티빙·iHQ

예능프로그램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연애 소재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환승연애2', SBS플러스·ENA플레이 '나는 솔로' 등 무려 15편의 관련 프로그램이 한꺼번에 공개돼 시청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청자는 "제작진이 차별화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날선 비판도 쏟아내고 있다.

● "가장 보편적 리얼리티 소재"

앞서 '나는 솔로', '환승연애2', KBS 조이 '연애의 참견' 등 기존 프로그램에 이어 KBS 2TV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SBS '연애는 직진', iHQ '에덴', MBC에브리원 '다시 첫사랑', 웨이브 '썸핑' 등이 쏟아져 나왔다. 연말에는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사내연애', '체인리액션' 등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21일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리얼리티 포맷으로 트렌드가 회귀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획성 예능 포맷이 시청률에서 뒤처지면서 제작이 쉽고 시청자 감정에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연애 소재가 리얼리티 형식으로 쓰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행에 편승하려는 각 채널의 과도한 경쟁이 연애 소재의 과포화 현상을 이끌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지상파 방송사 예능 PD는 "이미 관련 소재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지만, 높은 화제성 때문에 내부에서 관련 제작 지시가 계속 내려온다"고 호소했다.

● "결과는 진정성 훼손"

대부분의 연애프로그램이 비연예인 출연자들의 엇갈리는 로맨스, 이를 지켜보는 연예인 출연자들의 토크 등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되면서 부작용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비연예인이지만 실제로 미디어 활동에 기반한 출연자들을 섭외하는 등 진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청자의 시선을 잡아끌기 위해 점차 자극적인 장면을 강조하는 흐름도 지적하면서 "앞으로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우려도 많다"고 덧붙였다.

정 평론가도 "같은 이야기라도 어떤 콘셉트로 기발하게 조립할 수 있는지가 재미의 관건"이라면서 "각종 제작진이 '지옥도와 천국도' 등 색다른 설정을 추가한 넷플릭스 '솔로지옥', 추리물 성격의 '환승연애' 등 성공 사례를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배꼽 빠지고 싶으면 오세요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개막
14개국 76개 팀 다채로운 공연

"웃음이 희망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BICF·부코페)이 19일 막을 올려 웃음 축제의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해운대구 영화의전당과 KNN시어터 등 부산 전역에서 28일까지 최고의 코미디 스타들로 구성된 한국, 호주, 일본 등 14개국 76개 팀이 다채로운 공연을 열고 감염병 사태 이후 3년 만에 관객을 만나고 있다.

축제 초반을 달굴 무대는 유튜브 스타들의 차지였다.

최근 유튜브 스타로 떠오른 '숏박스'가 선두에 섰다. 김원훈·조진세·엄지윤으로 구성된 '숏박스'는 20일 800석 규모의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2회 공연을 매진 속에 펼치며 인기를 입증했다. 10대들의 일상을 콩트로 풀어내 1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급식왕'의 남하리·남태령·이은호 등도 27일 무대에 오른다.



유튜브 채널 '숏박스'의 주역인 코미디언 조진세·엄지윤·김원훈(왼쪽부터)이 20일 부산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 BICF조직위원회

9월 출산을 앞둔 김영희는 만삭의 몸으로 26일과 27일 '잇츠 홈쇼핑주식회사' 공연을 이끈다.

조윤호 부코페 프로그래머는 "KBS 공채 개그맨이 2018년 입사한 32기에서 명맥이 끊기는 등 (코미디 무대)인재 발굴이 힘든 상황에서 유튜브가 새로운 창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빠른 속도의 콩트 포맷, 강렬한 개성을 가진 캐릭터"를 매력으로 꼽았다.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해 관객의 웃는 횟수에 따라 관람료를 책정하는 '개그페이' 등 첨단 기술력을 활용한 무대도 눈길을 끈다. 다양한 나라의 개그맨들이 실시간으로 모여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무대 '코미디 버스' 등도 색다른 재미를 더한다. 부코페 집행위원장인 개그맨 김준호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만큼 공연자 섭외, 신기술 도입 등 행사 전반에 '힘'을 줬다"고 강조했다.

시민들도 오랜만에 거리 곳곳에 활기를 몰고 온 축제를 반가워했다. 직장인 김수정(24) 씨는 "아버지와 개막식을 지켜봤다. 유명한 개그맨들이 참여하는 공연이 많아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부코페 조직위원회는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단위부터 20~30대 젊은 세대까지 다양한 연령층 관객이 공연을 찾고 있다"면서 "직장인 단체 관람 구매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해운대(부산) | 유지혜 기자

국뽕 '한산'-신파 '비상선언' 엇갈린 희비

한산대첩 그린 한산 650만 돌파
"현실성 부족" 비상선언 힘 빠져

영화 '한산: 용의 출현'과 '비상선언'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필요한 감성의 강약 조절과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관객의 감정을 가장 직접적으로 파고들기 위한 방식에서 두 작품이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는 시각이 나온다.

'한산: 용의 출현'(한산, 감독 김한민)은 지난달 27일 개봉해 20일 현재까지 658만 관객을 모으며 관객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한산'은 2014년 '명량' 속 이야기보다 5년이 앞선 이순신의 한산대첩을 그린 이야기로 1700만 관객을 불러 모았다. 하지만 이순신의 개인에 초점을 맞춘 과도한 영웅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심지어 일명 '국뽕'(맹목적으로 나라를 찬양하는 행태를 뜻하는 속어) 영화라는 극단적 시각을 보내는 이들도 없지 않았다.

'한산'은 이 같은 전작의 단점을 최소화한 '모던한 전쟁영화'라는 평가를 받는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21일 '한산'은 "학익진 등 전략과 전술에 의한 장수 대 장수의 대결로 세련되게 그렸다"면서 "역사적 사실을 그리는 이야기일수록 균형 잡힌 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의 한 장면. 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반면 항공 재난물을 표방한 '비상선언'은 "신파 아니냐"는 악평에 발목을 잡혔다. 먼저 개봉한 '한산'에도 밀려 5위까지 박스오피스 순위가 떨어지며 18일 만인 21일 가까스로 200만 관객을 넘어선 것도 관객의 반응이 엇갈린 탓이다.

윤 평론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백여 비행기 승객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착륙을 포기하고 눈물의 영상 편지를 남기는 장면 등을 언급하며 "관객을 억지로 울리기 위한 개연성과 현실성이 부족한 작위적 설정이 반감을 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달라진 한국 관객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춰 과거 '흥행의 치트키'처럼 쓰였던 국뽕과 신파의 사용방식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영화의 감동을 국뽕이나 신파로 나누는 기준은 결국 작품의 '완성도'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이승미 기자

넷플 '모범가족' 아쉬움…'수리남'이 달랠까

韓 오리지널 시리즈 중 최악 성적
내달 9일 신작 공개, 흥행에 총력

넷플릭스 시리즈 '모범가족'이 올해 공개한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가운데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넷플릭스 한국 시리즈의 하락세에 정점을 찍은 모양새다. 9월 9일 공개하는 시리즈 '수리남'에 대한 넷플릭스코리아의 부담과 기대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12일 공개한 정우·박희순 주연의 범죄 스릴러 '모범가족'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이 매일 공개하는 '톱10 글로벌 차트'에 단 하루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오징어게임'의 세계적 흥행 이후 공개된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중 해당 차트에 들지 못한 작품은 '모범가족'이 유일하다. 국내 일일 차트에서만 몇 차례 1위를 차지했을 뿐, 일본·동남아 등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은 국가에서도 냉랭한 반응이다.

1주차 총 시청시간은 706만 시간(21일 기준)으로, 지창욱 주연 6부작 '안나라수마나라'가 같은 기간 기록한 종전 최저치(964만 시간)까지 경신했다.

평가 역시 아쉽다. 대표 글로벌 평점 사이트 IMDb에서 6.7점(10점)을 기록 중이다. 스페인 원작과 비교돼 혹평을 받은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5.3점)에 이어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중 가장 낮은 점수다.

IMDb 이용자들은 "주인공 묘사가 실망스럽다", "넷플릭스가 이런 드라마를 계속 만든다면 케이(K)드라마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될 것" 등의 평가가 나왔다.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잇따라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여기에 '모범가족'까지 흥행에 참패하자 넷플릭스코리아는 다음 달 9일 공개하는 '수리남' 흥행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역대 최대 제작비인 350억 원을 투입한 초대형 시리즈이니 만큼 사활이 걸렸다.

남미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한인 마약왕 검거를 위해 국정원의 비밀작전에 협조하게 된 민간인 사업가의 이야기를 그린 6부작 시리즈로 대부분 분량을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촬영했다. 영화 '공작',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등을 만든 윤종빈 감독이 연출했고, 하정우, 황정민, 박해수, 조우진, 유연석 등 국내 최고의 배우들은 물론 할리우드를 오가며 활약하고 있는 중화권 최고 배우 장첸이 출연해 기대를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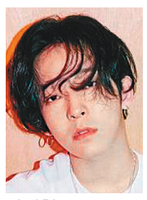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연예뉴스 HOT 5

블핑 '핑크 베놈' 73개국 아이튠즈 톱 송 1위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선공개곡 '핑크 베놈'(Pink Venom)이 각종 기록을 갈아 치우며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19일 공개 첫날에만 793만7063회 스트리밍되며 '글로벌 톱 50' 차트 1위에 올랐다. 케이(K)팝 여성 아티스트 곡으로는 최초다. 세계 73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뮤직비디오는 공개 29시간 만에 조회수 1억 건을 돌파했다. 한편 블랙핑크는 미국 대중문화 시상식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VMA)에서 방탄소년단과 함께 '올해의 그룹' 후보에 올랐다. '베스트 메타버스 퍼포먼스', '베스트 케이팝'까지 총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

남태현, 필로폰 투약 의혹 경찰 조사 착수



남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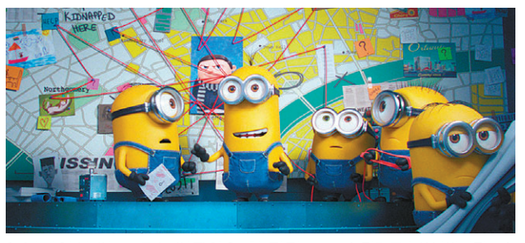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되면서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2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태현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하트시그널' 출연자 서민재는 자신의 SNS에 남태현과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삭제했다.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이 서울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에 신고했다.

홍진경 "학폭 논란 최준희 영상 게재 송구"

방송인 홍진경이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 과거 학교 폭력 논란이 있던 배우 고 최진실의 딸 최준희의 영상을 올렸다 삭제한 후 사과했다. 홍진경은 21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환희·준희와 함께 한 영상이 많은 분들께 불편함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아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라며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모두를 아프게 하는 그러한 단어(학교폭력)의 편에 서서 미화시키고 무마시킬 마음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홍진경은 최환희·준희 남매와 함께 출연한 영상을 올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학교 폭력 논란이 있던 최준희의 출연에 대해 비난하자 홍진경이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쿠팡플레이, 편집 갈등 '안나' 감독에 사과

쿠팡플레이가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의 편집을 두고 갈등했던 이주영 감독에게 사과했다. 이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시우는 21일 "궁극적 해결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던 중 19일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의 중재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며 "쿠팡플레이 총괄책임자로부터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6부작 '안나'에 이 감독과 스태프 6명의 이름도 삭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감독은 "쿠팡플레이가 8부작이었던 '안나'를 감독과 협의 없이 마음대로 6부작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쿠팡플레이는 '8부작 감독판'을 따로 공개했다.



애니메이션 영화 '미니언즈2'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유니버설픽쳐스

영화 '미니언즈2' 최근 3년 애니 흥행 1위

애니메이션 영화 '미니언즈2'가 최근 3년간 개봉한 애니메이션 중 흥행 기록 1위를 달성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영화는 20일까지 219만 명을 동원했다. 팬데믹 시기 개봉한 애니메이션 중 최고 흥행 기록을 가지고 있던 2021년 개봉작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218만 명)을 넘어섰다. '한산: 용의 출현', '헌트', '탑건: 매버릭' 등 국내외 블록버스터 대작들 사이에서 일궈낸 성과로서 더욱 특별함을 더한다. 2015년 개봉한 '미니언즈'의 속편으로 세계 최고 악당을 꿈꾸는 미니보스 '그루'와 그를 따르는 미니언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